논어 5편 공야장 22장 · 원문·풀이

子在陳，曰：「歸與！歸與！吾黨之小子狂簡，斐然成章，不知所以裁之。」

독음 · 자재진 왈 귀여 귀여 오당지소자광간 비연성장 부지소이재지

쉬운 풀이(요약) · 진나라에 있던 공자는 고향 제자들이 재능과 큰 뜻은 있지만 스스로 다듬는 법을 모르므로 돌아가 가르치고 싶어 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在 있을 재 재 / 陳 늘어놓을 진 진 / 曰 가로 왈

歸 돌아올 귀 귀 / 與 너울너울할 여 여 / 吾 자기 오 오 / 黨 무리 당 당

之 갈 지 / 小 작을 소 소 / 狂 미질 광 광 / 簡 대쪽 간 간

斐 오락가락할 비 비 / 然 불사를 연 연 / 成 이룰 성 성 / 章 문채 장 장

不 아닐 불 / 知 알 지 / 所 바 소 소 / 以 써 이 이

裁 마름질할 재 재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